

# 회의록

[illegible]

- 교무처장(○○○):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충남대 출신이 많아서, 따로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음.
- 의원(○○○): 되도록 충남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함.
- 의원(○○○): 중립적 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남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맞음.
- 의원(○○○): 추천인 명단의 비고란에 지역발전 연구, 경제정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?
- 교무과장(○○○): 관련 분야에서 충남대 학교 발전에 직·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는 의미임.
- 교무처장(○○○):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이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였음. 일단 충남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겠음.
- 의장(○○○): 충남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알아보는 동안, 다른 사람 추천 요청.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음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추천. 대전시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,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의 연구원이기 때문임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추천.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.
- 의장(○○○): 중립적 인사이면서 참여 가능 여부가 중요할 것임. ○○○, ○○○ 관련 프로필이 있는지?
- 교무처장(○○○): ○○○는 확인하고 있고, ○○○은 충남대 행정학부 출신임.
- 의원(○○○): 활동이 가능한 사람 10명을 추천했는지?
- 교무처장(○○○):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추천했음.
- 의원(○○○): 이미 총추위 구성원 중에 졸업생 1명이 있음.
- 의장(○○○): 객관적인 중립 인사에 관하여 추가 논의하겠음.
- 교무처장(○○○): ○○○도 충남대 출신임.
- 의원(○○○): 외부인사는 우리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야 함. 이미 다른 구성원은 각 직능단체 및 졸업생이기 때문에 관련인들만 추천하게 되어 있음.
- 교무처장(○○○): 외부인사를 충남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게 되면, 선정하기 어려워 짐. 충남대, 동창회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외부로

생각해야 함. 충남대 출신 22만 명을 제외하면 선정하기 어려워짐.

- 의원(○○○): 총추위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. 관련이 없다는 것은 충남대 발전과 총장 임용에 대한 관심도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임. 학교에 관심이 있으면서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○○○ 추천.
- 의원(○○○): 총장이 추천하여,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.
- 교무처장(○○○): 충남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○○○, ○○○임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추천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는 직위 때문에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? 실무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○○○ 추천.
- 의장(○○○): 총추위에서의 외부인사의 기능은? 그것을 알아야지 외부인사의 직위 관련 논의가 가능함.
- 교무과장(○○○):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총추위 기능에 대한 실무를 해야 함. 외부인사가 본연의 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참여와 실무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고민해 보아야 함.
- 의원(○○○): 의장이 결정하기를 요청함.
- 의원(○○○): 의장의 중재안을 따를 것임.
- 의장(○○○): ○○○은 충남대 출신인 것보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정 대상에서 배제했으면 좋겠음.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임.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등 객관성을 가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함.
- 의원(○○○): 충대 출신은 중립성을 훼손하니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. 이전 선거에서도 외부인사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,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음. 그러나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학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의장의 의견에는 일리가 있어 보임.
- 의장(○○○): ○○○ 바빠서 실무 어려움. ○○○, ○○○ 중 선택하기를 제안함.
- 의원(○○○): ○○○ 추천.
- 의원(○○○): 실무 가능하다는 점에서 ○○○ 추천.

- 의장(○○○): 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지?
- 교무과장(○○○): 현재 규정상의 내부위원만으로도 여성비율은 충족함.
- 교무처장(○○○): ○○○는 바쁘고, ○○○는 연구년 중임.
- 의장(○○○): ○○○, ○○○이 최종 선정됨. 의제 2인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의 협조 요청으로 넘어가겠음.
- 의원(○○○): 매주 한 번씩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대학 평의회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음.
- 의장(○○○): 최근 4년 동안의 타 대학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직능단체별 의견을 정리해서 수요일 회의 때 보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. 추가 의견이 있는지?
- 의원(○○○): 직전 선거의 교원 100% 기준으로 투표 반영 비율을 계산하지 말고, 모든 직능단체의 합이 100%로 계산하는 것을 제안함.
- 의장(○○○): 교원, 직원, 조교 합의된 방식이라는 취지에서 직능단체 전체 합 100%로 계산하는 것이 좋을 듯함.
- 의원(○○○): 주기적으로 만날 때 직능단체별로 몇 명이 모여서 만날지도 정하고,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.
- 의원(○○○): 주기적이고 협조적인 회의 진행 제안에 대해 동의함.
- 의원(○○○): 21년 9월 법 개정 이후에 선거를 치른 학교를 중심으로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함.
- 의원(○○○): 대개 전임교원이 많은 단과대에서 총장이 선출된 경우가 많았음. 각 단과대학별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.
- 의원(○○○): 공론화할 시간이 촉박함.
- 의장(○○○):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쿼터제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음.
- 의원(○○○):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지켜질 수 없음. 이 자리는 각 직능단체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각 단체의 권익을 요구해야 하는 자리임. 협의 대상은 학교이지 직능단체끼리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.
- 의장(○○○): 협의한다는 것은 의견이 일치할 수 없기에 조정해 나가는 과정임.

- 의원(○○○): 교수회장, 노조지부장 등이 아니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이라는 호칭이 맞음. 평의원끼리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평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, 직능단체 간 이익을 대결하는 자리가 아님. 투표 반영 비율 협의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교원, 학생, 직원, 조교의 합의된 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각 대표끼리 이익을 위해서 만날 수 있으나, 대학평의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님.
- 의원(○○○): 4인의 대표가 매주 회의해서 투표 반영 비율 안을 마련하자는 것임. 대학평의원회는 계속 회의를 열기 어려움.
- 교무과장(○○○): 회의 장소 마련 요청 시, 교무과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■ 폐회